

所謂 袈裟帶文으로 區分 裝飾되었고 雙龍이 틀고 있는 龍紐와 八稜波狀鐘口의 樣式을 갖추고 있다. 이 鐘에는 大德二年이라는 紀年銘이 있어서 元初의 鑄造임을 알 수 있으나 手法上으로 보아서는 아직도 唐鐘

樣式을 濃厚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全體의 形態는 輕快한 것이 있고 龍紐 밑으로부터 鐘肩에 걸쳐서 陽鑄된 簡明한 唐草文意匠이 鐘全體의 意匠을 잘 統禦하고 있다. 鐘肩의 이 唐草文意匠이 鐘는 等分된 間隔으로 八個所의 동근 구멍이 뚫려 있어서 注意를 끌고 있으며 鐘身部에 陽鑄된 여러 帶廓內에 上段에는 「皇帝萬歲 重臣千秋」를 비록한 大文字의 鐘銘을, 下段에는 細文字로 된 長文의 鐘銘이 있으나 判讀하기 힘든 部分이 많다. 八稜 狀形의 鐘口는 넓은 口緣帶를 이루고 있으며 이 八稜 口緣帶와 鐘身平行帶文사이의 間地에는 八卦가 配置되어 있다. 龍紐는 거의 完全한 狀態로 保存되어 있어서 巧妙한 雙龍의 寫實的 意匠이 매우 動的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全般的으로 보면 매우 素朴한 感覺을 주는 意匠이라 할 수 있으며 形態가 주는 느낌도 또한 優雅하다가 보다는 輕快한 느낌을 준다고 하겠다.

淨巖寺 水瑪瑙塔의 調査

鄭 永 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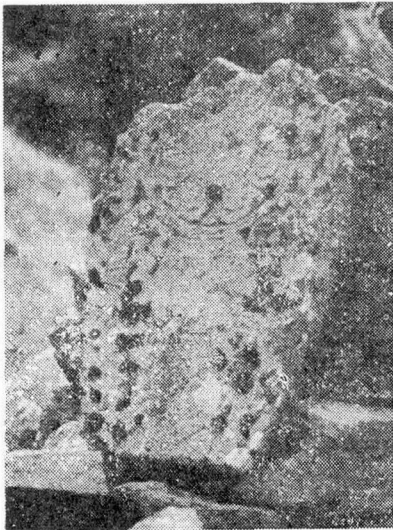
淨巖寺는 事蹟記에 依하면 新羅 慈藏法師 創建이라 傳하나 上古의 遺

第一卷 第三號 通卷 三號

構는 없고 오직 寂滅寶宮에서 水瑪瑙塔 一基를 볼 수 있다. 이 塔은 寺域에서 約 百米 떨어져 咸白山(海拔 一五七三m)비탈에 建立된 七層 樓壇石塔인데 바이 곳에서 많이 採掘되는 水成岩類의 石灰岩을 一邊 三〇—四〇cm의 大小 博形으로 切斷하여 生石灰 等を 使用하여 築造하였는데 博石은 品계 다듬어 같았고 灰綠色으로 보였다. 「瑪瑙」라면 佛敎에서 말하는 七寶의 하나인데 事蹟記에 依하면 塔內에는 佛舍利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珍寶를 奉安하였다고 한다.

塔의 全高는 九m로서 基壇部 塔身部 相輪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方形 基壇은 花崗石으로 大段을 이루었는데 上下 各三層의 石質 과 構成에 있어 差異가 보이는 것은 創建以後의 改修로 인한 듯 하였다.

一層 塔身은 높이 一〇三cm, 넓이 一七八cm로서 南面 中央에 넓이 一三cm의 花崗岩石柱로 문틀을 마련하고(높이 六〇cm, 넓이 六二cm)一枚石의 門扉는 中央에서 陰刻單線으로 兩分하고(一枚의 넓이 一一〇cm) 그 中心에는 쇠문고리를 달아 놓았다. 屋蓋반침은 一層이 七段인데



供養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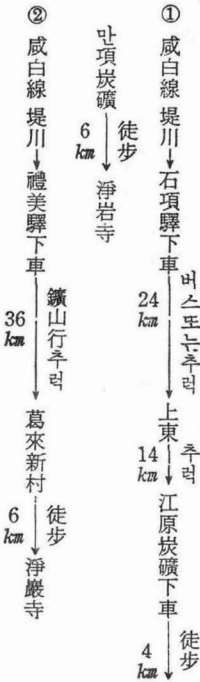


水瑪瑙塔

上層에 따라 一段씩 減少되었으며 落水面의 層段 또한 第一層의 九段에서 七層의 三段에 이르기까지 一段씩 減少되었다. 各層屋蓋의 四隅에는 風磬을 달았던 구멍이 엮보이며 곳에 따라 殘存된 것도 注目되었다. 相輪은 靑銅製로서 露盤으로부터 높이 一七〇cm 擦柱에는 花瓣形을 들린 寶輪五段과 寶蓋 寶珠가 남아 있어 거의 完全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 또 擦柱로부터 四層屋蓋에 이르기까지 鐵鎖를 걸어 놓은 것은 法住寺 捌相殿 相輪部와도 類似하다. 事蹟記에 依하면 創建當時 이 塔을 建立했다고 하나 그 후 「乾隆四十三年(一七七八A·D) 戊戌仲春 水瑪瑙寶塔 重修事蹟」 및 「大清同治十三年(一八七四A·D) 甲戌五月 水瑪瑙寶塔重修事蹟」 또는 天倚山 淨岩寺 碑名(寂滅寶宮右便에 建立되어 있음)의 「乾隆三十六年 庚寅(一七七〇A·D) 四月二十日 始役 辛卯(一七七二A·D) 四月二十八日 終役」 등의 記錄으로 보아 이 塔은 數次 重修를 거듭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基壇에서 上記와 같이 上部三層이 下部와 相異함도 基壇部의 變更으로 推定되었다. 南面 塔前에는 供養石이 있는데 (橫 五五cm, 縱 四〇cm, 高 二〇cm) 上面 中央의 蓮花紋 側面의 眼象 등이 高麗時代의 手法으로 생각 되었다. 寺域內에서 蓮花臺石 一個와 破損된 光背一石이 發見되었는데 後者의 火災紋과 中央의 重瓣蓮花紋으로 보아 이것 또한 高麗時代의 作品으로 推定되었다. 其他 境內에 瓦片이 無數하였으나 有紋瓦當은 發見치 못하였다.

塔材가 軟質이어서 破損된 部分이 많고 特히 塔의 位置가 傾斜地이며 暴雨의 被害도 있어서 修理保存이 時急하며 아울러 現存하는 造形 遺物 其他 事蹟 等に 對한 調査가 期待되는 바이다.

〔附〕 淨岩寺는 江原道 旌善郡 東面 古汗里에 있는 바 中央線 汽車를 利用 다음 兩路中 擇一하면 當日到着할 수 있다.



法華寺藏 三角塔印에 대하여

黃 壽 永

一九五七年 八月 慶南道廳이 實施한 文化財調査에 參加하였던 筆者는 智異山 法華寺(咸陽郡 休川面)에 古鐘① 古佛②이 傳來한다는 말을 듣고 同寺를 訪問한 바 있었는데 此品은 그 當時 着眼한 것이다.

三角形의 銅板인 바 下部만은 矩形을 이루고 있다. 表面에는 線刻된 高層塔 一基가 全面을 차지하였고 裏面의 下半部中央에는 작은 三山形의 손잡이가 縱으로 달려 있을 뿐 其他의 特記할 點은 없고 表裏 모두 烏銅色을 보이고 있어 傳世品으로 推定되었다. 塔은 十三層 方形木塔을 圖案化한 것인 바 各部樣式은 當代에 流行하던 金屬製工藝塔③보다도 더욱 略化되었다. 最下의 基壇은 佛壇과 恰似하여 蓮花 眼象 欄楯 등이 表現되었다. 塔身은 모두 三間을 보이는 바 初層에 있어서 넓은 中央間에는 如來像 一軀가 頭身光과 蓮花座를 具備하고 結伽趺座하였으며 左右間 上下에는 橫架木이 보인다. 四注式屋蓋의 檐裏에는 料栱을 表現하지 않고 오직 第一層에 있어서 三段의 平行받침을 보일 뿐이며 그 以上에서 는 이것조차 省略하였다. 屋蓋轉角은 反曲되고 그 尖端에는 鈴鐸代身에 各各 梵字를 새겼다. 瓦列은 平行되었으며 塔身 밑에는 一段의 받침으로서 欄干을 略

